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

주간 테러동향(제505호)

’26. 6. 5.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· 태

○ 韓, 서울 LG 마곡업무센터서 2명 흉기 피습

- 5.27 언론은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중상을 입었고, 경찰이 용의자(60대, 남)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

○ 日, “송별회 가기 싫어서”..., 식당 폭탄 테러 예고범 日 경찰관

- 5.28 언론은 일본 사가현에서 자신의 퇴직 송별회가 예정된 음식점에 허위로 폭탄테러 예고장을 남기고 협박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한 20대 경찰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

※ 경찰은 “퇴직 직장에서 열어주는 송별회에 가기 싫었다”는 진술을 토대로 위력 업무 방해 협박 혐의를 적용, 중징계 처분 후 자진사퇴 조치했다 부언

○ 韓, ‘인천지법에 USB 폭탄’ 협박 글...경찰 수색

- 5.29 언론은 인천지방법원에 USB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되어 경찰 30여 명과 탐지견 4마리를 투입해 법원 내 수색을 했으나,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

○ 韓, “페이커의 할머니 살해하겠다” 협박글···경찰 추적

- 6.1 언론은 프로게이머 ‘페이커(본명 이상혁)의 조모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과 일원역 일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게시한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 보도

※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지하철 3호선 일원역 역사와 7개 출구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두 게시글 작성자가 동일 인물인지 수사 중이라 부언

○ 국민의힘 하남갑 후보 선거사무실 침입·협박한 50대 체포

- 6.2 언론은 국민의힘 하남갑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실에 주취 상태인 50대 남성이 무단침입해 후보와 선거사무원을 상대로 폭언·협박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보도

유 럽

○ EU, '테러 범죄 공통 정의' 도입... 범유럽 대테러 체계 강화

- 5.28 EU는 유럽평의회 테러 방지 협약 개정 의정서에 26일 서명하고 회원국 간 공통된 '테러 범죄'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범유럽 차원의 통합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고 보도

※ 의정서는 테러 방지 지침에 명시된 EU '테러범죄' 정의와 일치하며 회원국 간 범죄인 인도·공동수사·사법공조 강화의 법적 기반이 될 전망이라 부언

○ 스위스, 기차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 칼부림...3명 부상

- 5.29 언론은 스위스 북부 빈터투어 기차역에서 스위스·튀르키예 이중국적자인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부상했으며, 당국이 해당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

※ 용의자는 과거 극단주의 테러단체 IS 선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, 범행 직후 "알라후 아크바르(신은 위대하다)"를 외쳤다고 부언

○ 오스트리아,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테러범 징역 15년 구형

- 5.29 언론은 오스트리아 법원이 ISIS 선전을 보고 폭발물 제조와 무기 구매를 시도하며, '24년 8월「테일러 스위프트」빈 공연장 테러를 계획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

○ 佛, PSG 우승하자 곳곳 불타고 약탈된 파리... 400여명 체포

- 5.31 언론은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축구 챔피언에 오르자 일부 극성팬들이 차량·상점을 파손하고 폭죽을 발사하는 등 폭력 사태를 벌여 400여 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7명이 다쳤다고 보도

○ 우크라이나, '킬러 로봇' 대거 투입..."전쟁의 판도 바꿨다"

- 5.31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지상 무인 로봇과 드론 등 무인 장비를 대거 투입해 병력 없이 러시아군 진지를 점

령하는 전쟁 수행 방식의 무인화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

※ 우크라이나는 올해 1월 이후 무인 장비로 2만 2천 건에 달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, 매달 러시아군 사상자 3만 5천명 발생시킨다는 목표를 달성

○ **독일, 축구팬에 흉기 테러 IS 조직원 종신형**

- 6.1 언론은 독일에서 지난 5월 18일 술집에 모여있던 축구 응원자를 '알라후 아크바르(신은 위대하다)' 외치며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극단주의 테러단체 IS 조직원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

※ 시리아에서 IS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이복형제를 포함 2명을 살해했으며, 정신감정인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심취했다는 소견을 내놨다 부언

중 동

○ **이스라엘, 가자 공습해 하마스 새 군사수장 살해**

- 5.27 언론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으로 하마스 알카삼 여단 새 지도자「모하메드 오데」를 제거했다고 밝히며, 10·7 공격*에 관련자 추적·보복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보도

※ '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 민간인·軍 다수가 사망·납치되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이 본격화

미 주

○ **美, 브라질 범죄조직 테러단체 지정…브라질 대통령 반발**

- 5.30 언론은 미국이 브라질 양대 범죄조직 CV·PCC를 테러단체로 지정하자 브라질「룰라」대통령은 "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며,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"라고 강조했다고 보도

※ 美 행정부는 해당 조직들이 마약 밀매,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 활동을 통해 브라질 사회와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영국 런던 브리지 테러

○ '17.6.3 英 런던에서 차량 돌진 및 흉기 테러로 8명 사망, 48명 부상

↱ 17년 3월(웨스트민스터 다리 차량 돌진(사망5, 부상40), 5월 맨체스터 아레나 자폭테러(사망23, 부상 512)

※ 연속 테러로 '17.5.27 테러 단계 조정(심각→경계) 후 7일 만에 발생

○ 이들은 차량과 칼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, 가짜 폭탄 조끼를 착용하여 경찰·구조대 등에게 혼란 야기

- 사망한 테러범 3명중 「카람 쇼타즈 부타」(27세)는 파키스탄 출생 영국 시민권자로 '15년에 MI5에 조사된 바 있는 인물이며, 「유세프 자그바」(22세)는 이탈리아 안보 기관의 모니터링 대상 인물로 확인

○ 경찰이 사건 발생 8분만에 테러범을 사살하는 등 신속·결단력 있는 대응에도 불구하고, 모니터링중인 대상자가 테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테러 대응·예방 전략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사건

⇒ **2026 FIFA 북중미 월드컵(6.11~7.19 / 캐나다, 멕시코, 미국)을 앞두고 테러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, 우리국민 피해 예방 대책 필요**

테러 상식

< 차량 돌진(Vehicle Attack) 테러 >

■ **(정의)** 차량 또는 차량에 폭탄을 탑재한 채로 시설이나 사람에게 돌진하여 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살상하는 테러 유형

■ **(특징)** △특별한 기술 불필요, △도구(차량)를 손쉽게 획득, △목표물 접근이 용이하고 직접 피해 유발, △흉기 난동 등 복합테러 가능

■ **(사례)** ▷ '08.08.04 中 베이징 올림픽 개막 전 軍 겨냥 차량돌진(사망 16, 부상 16)
▷ '16.07.14 프랑스 니스에서 트럭이 군중에게 돌진 후 총기 난사(사망86, 부상436)
▷ '16.12.20 獨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트럭 돌진(사망 4, 부상 15)
▷ '17.10.31 美 뉴욕 맨해튼에서 트럭이 사이클 행렬을 향해 돌진(사망 8, 부상 12)
▷ '25.01.01 美 뉴얼리언스에서 픽업트럭이 인파 속으로 돌진(사망 14, 부상 35)

■ **(대책)** △볼라드·로드블럭 등 장애물 설치, △트럭에 자동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, △차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진입로 설계 등